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 거울
소설가·사회평론가

교육부가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영어 방과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맞추라는 얘기라 한다.

무릇 유용한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모두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런 조치는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크게 해롭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거를 지녔다. 따라서 먼저 그것의 논거를 살펴서 논파해야 한다.

영어 교육에 비우호적인 주장들은 영어가 한국어와 경쟁한다고 전제한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근본적 이유는 영어가 세계어라는 사정이다. 다양한 민족어

영어 교육에 대한 성찰

들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영어로 소통한다. 즉 세계어인 영어와 민족어들은 보완적이다. 실은 민족어들의 효용은 세계어에 의해 증폭된다. 영어를 통해 세계로 퍼지지 않으면, 민족어를 통한 활동은 국내에 머물게 된다. ‘한류’라 불리는 활동들이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영어 사용의 혜택이 워낙 크고 분명하므로, 영어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처음 언어를 배울 때 영어와 한국어가 경쟁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영어는 언어적 정체성이 확립된 뒤에 배워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는다. 이번 논란의 뿌리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그런 처방을 따랐다.

그런 처방은 일상적 경험과 맞지 않고 언어학의 정설과도 어긋난다. 아이들은 언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난다. 그리고 틀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 모국어로 삼는다. 이처럼 선천적 능력이 환경에 맞춰 발현되는 과정은 각인(imprinting)이라 불린다. 동물들의 새끼가 어미를 알아보는 것이나 연어가 태어난 하천을 기억하는 것도 다 이 각인 덕분이다.

각인은 일정 기간만 작동한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가 입력될 수 있다. 그런 결정

적 시기(critical period)는 새끼가 어미를 알아보는 일에선 생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다. 언어의 습득에서는 대략 11세 까지도. 즉 11세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언어는 뒤에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원어 민처럼 쓸 수 없다.

언어 능력은 보편적이므로, 보통 사람도 여러 언어를 쓸 수 있다. 물론 먼저 배운 언어를 더 잘 쓴다. 두 언어를 동시에 배워도,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세하다. 그렇게 먼저 배운 언어가 모국어로 자리 잡기 때문에, 언어적 정체성에서 혼란은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되도록 어릴 적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국어를 배우고 이어 세계어인 영어를 배운다.

이중언어 사용은 크게 이롭다. 풍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중언어 사용자의 뇌는 단일언어 사용자의 뇌보다 민첩하고 갈등을 잘 풀고 치매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문화적 공감 능력, 열린 마음 및 사회적 주도력에 서도 낫다. 자연히, 지능이 높아지고 소득도 따라서 높아진다.

반면에 여러 언어를 배우는 데서 나오

는 부작용은 없다. 단 하나의 문제는 분산적 이중언어 사용(distractive bilingualism)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첫 언어의 습득이 중단되거나 불충분하면, 그 아이는 두 언어 다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민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때로 나온다.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라는 교육부 조치의 근거인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거꾸로 읽은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민 오지 않았다. 모두 얼마 품에서 한국어어를 배워서, 첫 돌 지나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는다.

영어 조기 교육이 문제적이라는 조사들은 우리 사회에서만 나온다. 그런 조사들은 단편적이고 편향적이어서 방법론적으로 너무 허술하다. 무엇보다도, 언어학의 정설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놓고도, 그런 예외적 현상이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영어를 배우지 못해서 입을 손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클 것이다.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이라는 명분으로 그것을 확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종교칼럼



장 현 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봉쇄 수녀원에 있는 수녀님에게 보내는 편지

광주는 하얗게 겨울 눈이 내리고 있어요. 수녀님을 만난 것은 당시 수녀님이 그곳 원장으로 계시 때였지요. 수도원 공동체 탐방하는 시간(2007년)에 마산에 있는 수정 트라피스트 봉쇄 수녀원을 탐방했지요. 원래 트라피스트 수녀회는 봉쇄 수도회로 세상의 접촉을 하지 않지요. 오직 수도 생활에만 전념하는 수도자들의 공동체이지요. 외부와의 접촉은 병원 갈 때와 국민투표 할 때 정도 일뿐이라는 것도 알았습시다.

지금도 하루 일과는 봉쇄 구역 안에서 관상을 통해 하느님께 겸손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지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전례 기도로 하느님의 일, 하루 7번의 미사와 찬미 그리고 거룩한 독서, 마음의 귀로 하느님 말씀 듣는 책임기와 손 노동을 통해 창조 사업에 기쁘게 참여하리라 믿습시다.

무엇보다 노동자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일치 안에 살게 되는 일 등이 생각납시다. 수녀원의 유일한 경제 토대는 유기농 짬을 만들어 판매하는 공동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은 하지만 판매하는 여건들이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녀님의 요청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수녀님이 “목사님 산업 단지에 신음하는 수정마을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사연은, 수녀원에서 멀지 않은 수정만 매립지에 들어서고 있는 조선 기자제 공장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시다. 마산시가 경제 회생을 위해 주택 용지로 매립한 이 땅의 용도를 공업용 용지로 바꿔 조선 기자제 공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옹골, 굴 양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300여 세대, 1000여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했지요. 수녀님들이 직접 손으로 야산을 일궈 가꾸는 수녀원의 수도 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수녀님을 찾아와 사정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해, 수녀님들이 세상 속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원장 수녀로서 외출 허가 받아 동봉서주하며 27명의 수녀님들과 거리와 시청 마당에서 시위하고 버거운 시간을 가운데 결국에는 승리하신 모습도 보게 되었지요.

그때 사람들은 자본이라는 권력 앞에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을까 했지만 수녀님들의 고요함과 맑은 영성은 바위를 깨는 힘이 확인된 것이지요. 경제 개발이라는 괴물과 맞서 싸운 것이지요. 그때 수

녀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도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수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파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으로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 들고 있을 때도 기도의 촛불로 응원하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지요. 수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이 최근에 보내주신 ‘수녀님, 서툰 그림 읽기’ 수목화 속의 공백과 대면한다는 글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아니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내재하는 이 불길인 나의 불길과 만나 또 다른 불꽃과 불향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보내주신 소식지를 통해 고요히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봉쇄 수녀원이 마치 세상과 답을 쌓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한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수녀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시다. 수녀님을 비롯한 트라피스트 수녀원에 수도하시는 모든 수녀님들 새해도 건강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빛고을에서 장현권 목사 올림.

기고



김 지 원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

화 향유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지방정부의 문화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은 향유의 대상이자 관람자, 문화예술 행위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취향 영역에서 ‘아마추어’, 또는 ‘동아리’ 예술 활동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형태를 변화시켰다. 소극적 관람자에서 직접적 참여자로 변신하면서 시민의 자생적 생활 문화 생태계가 생겨난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문화기본법, 지역 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시민예술단체 지원 법제화가 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의 생활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조례 제정 확산이 생활 문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매년 12월 말에 되면 전국 16개 광역문화재단이 생겨나면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현재는 경북을 제외하고 16개 광역문화재단이 예술지원, 교육, 복지 등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문화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5년간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중 창작 지원 사업의 기조는 ‘전문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

비상 접점이 일상이 됐고 사무실은 ‘도떼기 시장’이 됐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새해의 공모 사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시비 매칭 지원사업은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5개 유형이 있고 전문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을 지원한다. 시비 지원사업은 3가지로 시민문화단체, 동아리, 야외공연 창작단체를 구별해서 지원한다.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공모해 오는 1월 25일에 마감하는 사업은 ‘2018년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1월 15일부터 국가문화예술시스템(NACS)에서 접수를 받는다.

창작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무적인 것은 예산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는 점이다. 총액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2억 이상 증액이 되어 지원단체와 예술인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지역 협력형 사업은 모든 유형에서 기획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기획 의도를 담아냈다. 먼저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에서는 예산 15% 범위에서 기획 사업을 운영한다. 상주단체나 공공 공연

장의 선정 결과 이후 장르나 공간 안배, 특성화와 지역 브랜드 관점에서 재구성을 해볼 계획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재생 및 활성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교류 사업에는 대상지로 일본 북해도문화재단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장의사를 포함시켰고, 지역 문화예술 육성사업의 청년 예술인들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문화거점 사업은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한 사업을 통해 문화를 통한 공감과 연대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여러 장르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하기에 ‘예향 광주’는 과거 회상적 담론이 아니라 오늘의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호명되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향후 진행되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고려하면 광주는 이제 새로운 ‘문예 부흥’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예술 자체로서의 기능과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도 확산하면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호남권 낙후 탈피 위한 장기 전략 시급하다

‘낙후’의 사전적 뜻을 보면 ‘기술이나 문화, 생활 따위의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뒤떨어짐’을 말한다. 우리가 ‘낙후’란 단어에서 처음 떠올릴 수 있는 지역은 너무나도 당연히 호남이다. 객관적인 지표로 봐도 호남은 타 지역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들자면 해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수십 년 유지되던 보수 정권으로부터의 핏박과 푸대접이나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 등등. 이 중에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요소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 와서 이를 따지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호남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광주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역 격차 원인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야별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번 용역에서 광주·전남·전북이 영남권이나 충청권 등과 비교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연구개발 투자·인력, 지역경제력 및 주력산업, 일자리 개수 및 질 등을 비교·분석해 국가 예산의 공정한 배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산 지원 시기·규모 등을 차등화하기 위한 지역특급제 실시, 지방투자 촉진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재정보 및 범위 확대, 지방중추도시 시내 면세점 설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도시재생특별지구 지정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요 낙후된 호남권을 되살리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기반시설 위주의 단편적인 요구보다는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한 뒤 이에 합당한 과제와 사업을 발굴해 예산 배정 및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할 때다.

가상화폐 투기 진정시킬 근본 대책 세워야

가상화폐 열풍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 직장인은 물론 주부와 대학생, 심지어 10대들까지 ‘대박’을 노리고 묻지 마시 투자에 나선 모습에 ‘투기 광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투기를 넘어 도박 양상까지 띠자 정부가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책을 내놓았다. 사정당국은 물론 금융 당국까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압박에 나선 가운데,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가상화폐의 거래가 매우 위험하고, 버블이 꺼질 때 투자자가 입을 막대한 손실을 우려했다고 한다.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은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 시세의 130% 안팎이었으나

최근에는 150% 정도까지 폭등했다. 이를 두고 해외 언론들은 한국 유통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아 그 가격 차를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한국의 과열 양상을 꼬집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사이트는 한국 거래소와 다른 나라 거래소 간 가격 차가 크다는 이유로, 국제가격 산출 시 한국 거래소 가격을 제외한 적도 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평가는 진행형이다. 또한 미국·일본·독일의 경우 가상화폐의 거래 기반인 ‘블록체인’ 등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버블이 꺼질 때 투자자가 입을 막대한 손실을 우려했다고 한다.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은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 시세의 130% 안팎이었으나

無等鼓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선수가 있다. 스켈레톤 금메달에 도전하는 윤성빈이다. 그는 2017~2018시즌 1차 월드컵 은메달로 출발한 뒤 2~4차 대회에서 3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로 불리는 라트비아의 두쿠르스와 세기의 대결을 펼친다.

스켈레톤은 루지·봅슬레이와 함께 슬라이딩 종목의 하나다. 스켈레톤(Skeleton)의 원뜻은 ‘뼈대’나 ‘해골’이다. 이름부터 오싹한 이 경기는 머리를 앞

평창 올림픽

바 이애슬론, 설원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눈 위의 서핑인 스노보드, 강렬한 전사의 경기 아이스하키, 빙판을 쓸고 달고 밀고 막는 머리싸움의 끝판왕 컬링, 400m 링크트랙에서 펼쳐지는 속도 대결인 링크드 스케이팅, 그리고 한국의 메달밭인 쇼트트랙.

이번 올림픽에는 95개국 5만여 명의 선수단이 총 15개 종목에서 금메달 102개를 놓고 겨룬다. 지금까지 한국의 동계

올림픽 메달은 모두 눈이 아닌 얼음 위에서 나왔다. 53개의 메달을 모두 빙상에서 수확하고 이중 42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그만큼 편중이 심했으나 이번엔 썰매를 비롯해 스노보드, 컬링, 아이스하키 등으로 메달 종목을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의 진정한 맛은 즐기는 자의 몫이다. 이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스포츠다. 특히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는 어떤 종목이든 매력적임이다. 개막까지 28일 남는 평창 올림픽, 자기만의 관람 풍미를 갖는 노르디, 눈 위를 날아 최고의 스릴과 짜릿함을 선사하는 프리스타일 스키, 마라톤과 사격을 동시에 즐기는 바이애슬론, 설원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눈 위의 서핑인 스노보드, 강렬한 전사의 경기 아이스하키, 빙판을 쓸고 달고 밀고 막는 머리싸움의 끝판왕 컬링, 400m 링크트랙에서 펼쳐지는 속도 대결인 링크드 스케이팅, 그리고 한국의 메달밭인 쇼트트랙.

이런 올림픽에는 95개국 5만여 명의 선수단이 총 15개 종목에서 금메달 102개를 놓고 겨룬다. 지금까지 한국의 동계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 편집국장 金日煥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사 회 2 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